

자아존중에 안정해 있는 영혼의 자격요건

밥다다는 각 자녀를 수백만 곱절로 복 많은 영혼으로 본다. 각자의 고귀한 보상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있다. 무한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의 자녀들 중 참으로 많은 수가 세상에 숭배받을만큼 지극히 가치 있다. 비록 너희 모두 노력가들이고 등수대로 지만, 꼴등인 자녀마저 세상에 기억되고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꼴찌인 그 자녀가 여전히 기억되면서 숭배 받고 있다. 무한한 아버지 한 분의 그토록 많은 수의 자녀들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된다! 너희들 모두가 얼마나 수백만 곱절로 복이 많은지 그저 생각만이라도 해봐라! 오늘날까지도 너희의 신봉자들은 신인종교에 등수대로 속하는 너희 영혼들을 다만 일별이라도 하고자 갈망한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16,000의 염주의 마지막 구슬조차 대견스럽다. 너희가 어떤 유형의 노력가이든, 즉 부주의한 노력가, 평범한 노력가, 치열한 노력가 중 무엇이든, 너희는 아버지에게 속했으며, 기억되고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 신성함의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첫덩이였던 너희가 연금술사의 돌처럼 변했다. 연금술사의 돌에는 틀림없이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아존중에 있어 너희 자신을 결코 더 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육체의식이 되지 마라.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자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다. 자아존중이 더 클수록 너희는 “하 지”라 말함에 있어 그만큼 더 겸손할 것이다.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자들은 남들을 존중하는 공여자들이다.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젊건 늙었건, 깨달음을 얻었든 또는 그렇지 않든, 마야의 정복자이건 마야에게 영향 받건, 덕성스럽든 아니면 한두 가지 결함을 여전히 갖고 있든, 다시 말해 덕성 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든, 영혼들을 존중하는 공여자다. 그들 스스로 충만하므로 그들은 변함없이 늘 자비로운 것이다. 공여자는 자비로운 이라는 뜻이다. 그런 영혼은 다른 어느 영혼에게도 윗사람 행세를 하며 부러먹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왜 이런가? 당신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래선 안 되지!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말인가?” 이런 생각들은 모두 미묘한 윗사람 행세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공여자는 모든 이를 존중하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드높일 것이다. 만일 어떤 노력가가 나약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비록 그가 자기 단계에서 더 내려가더라도, 너희는 자아존중을 유지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비로운 영혼들이다. 자비로운 영혼의 의무는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협조하는 것이지, “왜 넘어졌어요? 당신이 쓰러졌던 게 틀림없군요! 당신 자신의 카르마로 인한 결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뭘 하든 반드시 당신이 그 보답을 받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영혼들은 자아존중을 유지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비로운 영혼들은 어떤 영향하에 놓이든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일 것이다. 윗사람 행세의 흔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자아존중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 영혼들은 결코 육체의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자비로운 영혼으로 보는 시선으로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각자를 본다. 아버지를 따라라.

봄베이의 주민인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름에 있어 총명하지 않느냐? 봄베이는 아버지의 집(장소)이었고 그래서 사카르 바바는 봄베이에 많이 갔다. 사카르 바바가 그곳에 몇 번 갔든 너희는 그 횟수만큼 많이 부양 받았다. 그러니 그 땅의 주민인 너희는 자비로운 영혼들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남들의 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약점(카미)도 보지말고 그들이 행하는 경이로움(카말)을 보라. 그러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약점은 뭐든지 경이롭게 바뀔 것이다. 너희들은 자비의 땅에 사는 위대한 영혼들 아니냐? 봄베이 사람들은 1등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될 것이다. 파괴의 불꽃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때에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을 테지? 너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가 아직 너희의 백성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너희는 미리 모든 것으로 가득해져야 한다. 심지어 자연조차 너희의 하인이 되어 너희를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인은 반드시 제 주인의 시종을 들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밥다다가 쿠마르들과 만나심.

1) 쿠마르들과 브라마 쿠마르들. 너희들은 가정생활에서는 아들이고, 브라민 생에서는 브라마 쿠마르다. 너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브라마 쿠마르다. 만일 너희가 단순한 아들로 남아 있으면 마야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브라마 쿠마르로 지낸다면 마야는 도망갈 것이다. 이처럼 브라마가 아디

데브 (첫 번째 신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브라마 쿠마르들은 본래의 보석들이다. 아디 데브의 자녀들은 아디 데브 마스터들이다. 너희 스스로를 원래의 보석이라 여길 때, 너희는 너희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너희들 모두 프라부(신)의 보석들, 이슈와르(신)의 보석들이니, 너희들의 가치는 참으로 대단하다. 한결같이 너희 자신을 아디 데브의 자녀인 아디 데브 마스터, 원래의 보석이라 여길 때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강력할 터이며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쿠마르들이 봉사에 더 바쁘게 지낼수록 너희는 그만큼 더 마야의 정복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놔두지 마라!

2) 쿠마르들은 모든 면에서 굴레가 없이 자유롭다. 세상의 책임 면에서도 굴레가 없고, 너희는 마야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다. 너희는 어떤 굴레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이가 굴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가 끊임없이 요그육트하다는 점이다. 요그육트한 사람은 틀림없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마음의 속박마저 없을 것이다. 세상의 책임은 게임과도 같다. 그것들이 마치 굴레나 되는 양 그것들을 완수하지 말고, 그저 웃고 놀면서 게임처럼, 지시를 따르고 있는 듯이 그것을 이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사소한 일들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굴레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몹시 시달린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테고 “왜?” 나 “무엇이?” 같은 의문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너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쿠마르들에게는 꼬리(배우자)가 달려 있지 않으니 너희는 굴레가 없이 2중으로 자유롭다. 변함없이 행운을 누리라. 두려워 마라.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좋다. 너희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먼저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려라. 혼자라고 여길 때는 너희가 지친다. 너희와 바바, 이렇게 둘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정확하게 요리해라, 그러면 대단히 즐거울 것이다. 너희들 중 누가 아플 경우엔 다른 이가 그를 돌보며 봉사하게끔 너희 쿠마르들은 한데 집단으로 지내야 한다. 꼬리(배우자)를 달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매우 괴로워질 것이다. 겉으로는 너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테지만 만일 너희가 꼬리를 단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지금 현재 너희는 자유롭지만, 그렇게 할 경우엔 책임이 늘어날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아버지를 너희의 동반자로 삼았느냐? 그렇다면 한 분의 동반자를 떠나 다른 누군가를 너희의 동반자로 삼겠느냐? 심지어 세속의 삶에서도 그것은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쿠마르들은 결코 너희가 혼자 있다고 간주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불행해지는 것은 너희가 혼자라 여길 때다.

쿠마르들은 화산 같은 불의 형태가 되어서, 파멸이 아주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불꽃을 점화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요가의 불을 활활 지펴서 파괴의 불꽃이 강해지게 해라.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왜?” 나 “무엇이?” 라고 묻는 자들이 아니지? 오직 트리칼다르시 마스터가 아닌 자들만이 그런 의문들을 가질 것이다. 시간의 세 측면을 다 아는 자들은 “왜?” 나 “무엇이?” 같은 의문들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직 어린 아이들만 “왜?” 나 “무엇이?” 라고 묻는다. 너희들 모두 은퇴의 단계에 도달했다. 은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너희는 어떤 유형의 마야도 초월해 머물 것이다. 너희 지각의 선이 더 뚜렷할수록 너희 노력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너희들 모두 지각의 선이 또렷하냐? 쿠마르들은 대단한 경이로움을 행할 수 있다. 너희들은 영적인 청년들의 그룹 아니냐? 만일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파괴를 행하는 반면 너희들은 건설을 가져온다. 너희가 가져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다. 너희가 수업을 행할 때, 파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쿠마리 한 명은 브라민 100명보다 더 고귀하다고 일컬어지는데, 그렇다면 쿠마르인 너희들은 몇 명보다 더 고귀하냐? 쿠마르 한 명이 일곱 명의 시틀라 (침착함의 여신)와 함께 묘사되므로, 너희들은 브라민 700명보다 더 고귀하다. 쿠마르들은 열심인 일꾼들이며,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 너희 쿠마르 각자가 그룹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들끼리 경쟁이 아닌, 경주를 해라. 마야가 제아무리 너희를 흔들려고 애써도 너희는 앙가드처럼 머물며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야가 너희 손톱마저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약함의 산스카르를 아주 약간이라도 갖고 있으면 마야는 너희를 그

에게 속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산 채로 죽어라, 즉 너희의 낡은 산스카르들에 대해 산 채 죽어라. 장애는 너희들을 위한 교훈에 불과하다. 이 교훈들을 배움으로써 너희는 우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그것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며, “왜?” 나 “무엇이?” 같은 질문들을 지나치게 많이 묻지는 않을 것이다.

쿠마르들은 한결같은 봉사자들이며 너희는 온갖 봉사를 다 한다. 너희들은 생각, 말, 행위를 통해서 봉사한다. 온갖 봉사를 다 하는 만능 봉사자들이 이처럼 많으니 쓸 수 있는 손들이 많다. 다 함께 하면, 너희들 모두 대단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밥다다가 우다르 쿠마르(결혼한 형제)들과 만나심.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일별 (다르샨)을 하기 위해 여러 장소들을 찾아다녔고, 아버지는 너희들을 일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고의 거주지에서 왔다. 뭔가를 보는 것을 다르샨을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보려고 온다. 여기서는 그런 유형의 다르샨이 아니다. 여기서의 다르샨은 만남을 축하한다는 뜻이며, 너희가 완전히 만족되는 것을 다르샨을 통해서다. 우다르 쿠마르들은 끊임없이 순수한 가정에서 사는 자들이다. 무한한 가정에서 너희들은 한결같은 봉사자들이며, 한정된 가정에서는 너희가 한결같이 초연하다. 이 우다르 쿠마르들의 그룹은 연꽃의 꽃다발이다.

집에서 살면서 너희의 단계는 장애의 파괴자의 단계가 아니냐? 장애의 파괴자의 단계는 한결같이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이며, 그것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다. 너희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떠한 장애도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한결같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에 있지 않으면 때로는 장애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때로는 너희가 장애를 파괴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장애에 영향 받는지에 따라 너희는 그 십만 배로 손실을 일으킨다. 가치 있는 방식으로 1시간을 보내면 너희는 10만 배로 축적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1시간을 낭비하면 십만 배의 손실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의 낭비의 계좌를 끝내라. 매 1초마다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자녀들이니 끊임없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에서 사는 동안에 마야로부터 한결같이 자유로이 지내라. 초연함을 유지하면서 사랑해라. 초연함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너희는 한결같이 마야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초연한 상태에 머문다. 초연한 자들은 끊임없이 신에게 사랑 받는다. 초연하다 함은 관리인이 된다는 뜻이다. 관리인은 아무에게도 애착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들은 모두 관리인들 아니냐? 너희들 자신을 가정을 가진 자라 여길 때는 마야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자신을 관리인이라 여길 때는 마야가 도망갈 것이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너희는 마야를 낳는다.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을 때는 마야가 태어날 수 없다. 쓰레기 속에서 벌레가 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마야가 태어난다. 그래서 마야의 정복자가 되는 쉬운 길은 너희 자신을 관리인이라 여기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이것에서 똑똑하지 않느냐? 브라마 쿠마르는 관리인이라는 뜻이다. 비록 너희가 집에서 살아도 너희는 가정을 가진 쿠마르가 아닌, 브라마 쿠마르다! 너희가 브라마 쿠마르임을 자각하며 지낼 때 너희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초연함을 유지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브라마 쿠마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관계라 여긴다면 그럴 때는 마야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희의 영적인 성(BK)을 기억해라.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희는 모든 것에 다 경험이 있다. 너희는 지식에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경험의 보석들을 발견하는, 지식의 대양 마스터로서 경험도 그만큼 있느냐? 너희가 대양의 바닥인 해저로 내려가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보석들이다! 이처럼 지식에서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희는 더 많은 경험의 보석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경험의 화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들은 너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를 보고 자기들도 역시 경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경험 있게 되었느냐? 한 가지는 지식을 듣고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험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지식을 듣고 지식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경험의 화신이 되는 것이 최종 단계다. 경험이 더 늘수록 너희는 장애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계속해서 경험을 개발해서 모든 미덕에 대한 경험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가 무엇에 관해 말하든 그것에 대해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판단자들 모두 경험의 화신들 아니냐? 누가 경험 있는 자를 흔들려고 애를 써도 흔들지 못한다. 마야

는 경험 가진 자에게 뭘 하려고 애를 써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야의 장애들에 대해 경험이 많다, 그렇지? 노련한 사람은 결코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경험의 기반을 강하게 다져라.

빠른 노력의 속도로 부단히 계속해서 발전해라. 너희가 순수한 생각으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낭비적인 생각이 모두 멈출 것이다. 날마다 듣는 지식 전체에서 한두 가지 요점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낭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되새기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지식을 되새기는 방법을 배워라. 그저 한 마디 말을 택해서 그 단어 깊숙이 파고들어라. 매일 너희 자신에게 생각할 주제를 하나 골라 줘라, 그러면 낭비적인 생각이 멈출 것이다. 낭비적인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너희의 지각으로 마두반에 오너라. 마두반의 분위기와 고귀한 동반자를 기억하면 너희의 모든 낭비가 멈추고 너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한다. 우다르 쿠마르인 너희들이 브라마 쿠마르가 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행동할 때마다 매번 너희가 수백만 배로 복 많은 영혼이라는 의식 속에서 행동한다면 그 행동 각각이 고결할 것이며 많은 수의 남들이 너희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메신저들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리고 누구와 접촉하게 되든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해라. 계속 씨앗을 뿌려라. 너희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었는데도 거기서 아직까지 겨우 두어 명만 나왔다고는 결코 생각지 마라. 씨앗에 따라서 일부는 빨리 결실을 맺지만, 한편 다른 씨앗들은 계절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다. 이 씨앗들은 불멸하며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라, 즉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한결같이 기억과 봉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희열로 충만해져라. 앓차.

축 복: 왕국의 옥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로크 파산드 (국민 의회)”에 일부가 되는 티켓을 예약해라.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우선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의 생각에 이기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자아가 좋아하는 것이라 일컬어질 것인 반면, 세계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신도 좋아할 것이다. “로크 파산드 사바”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왕국에 대한 권리, 즉 법과 질서의 옥좌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는 뜻이다.

슬로건: 신의 동반을 경험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게 머물며 만사 모든 것을 쉽게 경험할 것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